

## VI. 영국

□ FY2010 : 2010년 4월 ~ 2011년 3월

□ 출처 : 『2009 Pre-Budget Report』<sup>10)</sup>(2009. 12. 09), (<http://www.hm-treasury.gov.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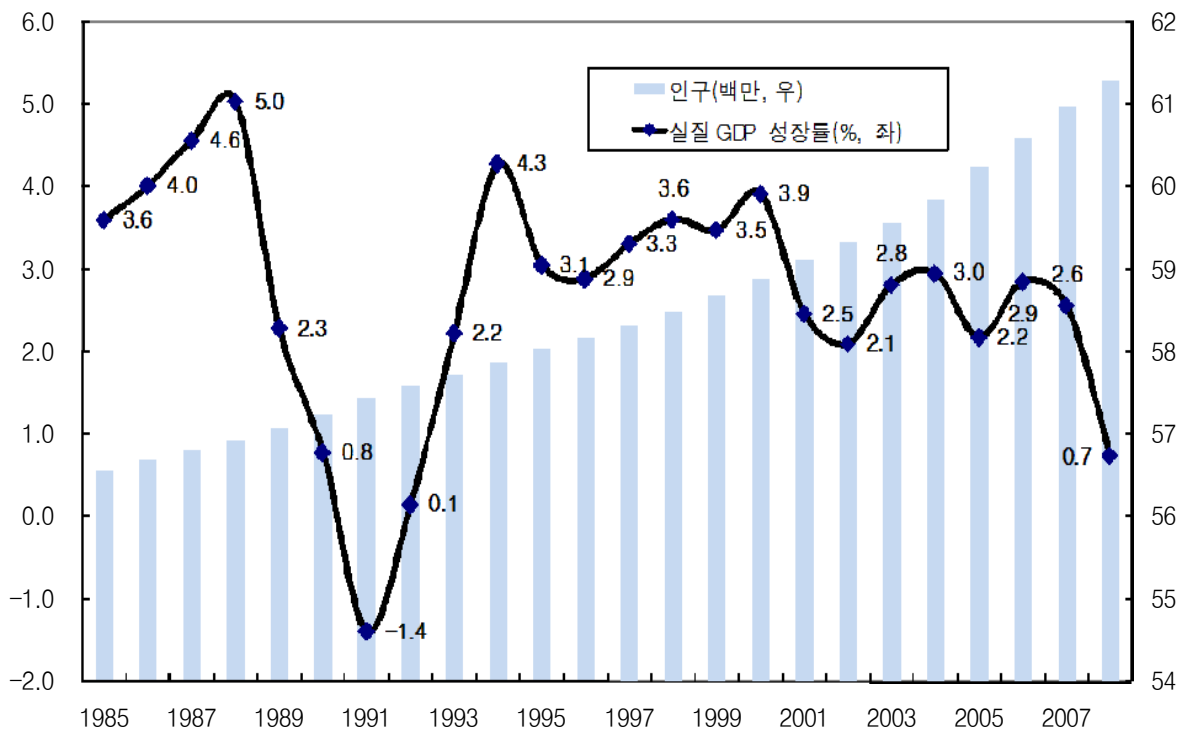
□ 환율 : 1파운드 = 약 1,993.8원(2009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08년 경상GDP 2조 1,865억달러(우리나라 1.6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08년 기준 61.0%(우리나라 107.0%)

□ 인구 : 6,135만명(2008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10) 영국은 통상 회계연도 개시 전후인 3~4월에 예산안 발표. 회계연도 개시 전에는 전년 11월경 Pre-Budget을 발표하여 예산기조 및 내용에 대해 공유함. 예산안은 Pre-Budget 내용과 큰 차이는 없으나 세입·세출내역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이번 Pre-Budget은 2010년 6월(예정)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선심성 급여정책을 내세우고 세금인상계획 및 지출삭감계획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현재 노동당 정부는 당내 갈등이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등 내외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한 상태임.

<요 약>

- ◇ (경제전망) 영국 정부는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0년 이후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측
  - 2009년 GDP 성장률은 연초 전망보다 악화된 -4.75%로 수정, 2010년에 플러스(1~1.5%)로 전환하여 2011년부터 3.25~3.5%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
  
- ◇ (재정전망)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로 당분간 차입과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FY2010년 경상재정적자가 GDP의 -9.3%로 확대, FY2014년에 -3.2%로 축소 전망
  - 공공부문 순부채 규모는 FY2010년 GDP의 65.4%, FY2014년 77.7%로 증가 전망
  
- ◇ (정책기조) “경기회복의 공고화, 성장과 기회의 제공”(Securing the recovery : growth and opportunity)이라는 기조하에 다음 세부 정책목표 제시
  - ① 거시안정성 유지
  - ② 금융시장개혁
  - ③ 기업·성장 지원
  - ④ 취약계층 지원 및 공정성 확보
  - ⑤ 공공서비스 유지
  - ⑥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 (경상세입) FY2009예산안 전망보다 18억파운드 증가한 5,303억파운드로 예측
  - FY2010년 경상세입 GDP 비중은 36.0%로 FY2008년에 비해 1.1%p 감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FY2009년에 비해서 0.7%p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이후 경기가 회복된다는 가정 하에 FY2012~2014년 GDP의 37.7%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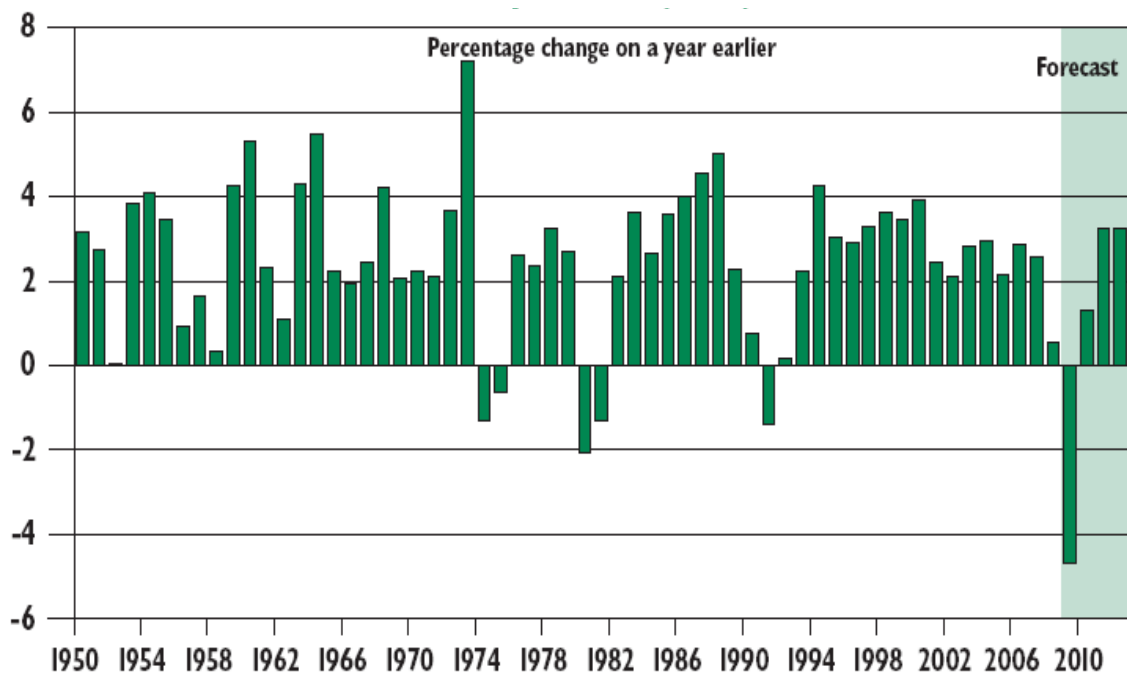
- ◇ (지출) 총관리지출(TME) = 연간관리지출(AME) + 부처별 지출한도(DEL)
  - FY2010년 총관리지출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7,066억파운드
  - 연간관리지출은 고정비 성격의 지출로 3,139억파운드(전년 대비 8.3% 증가)
  - 부처별지출한도는 재량적 성격의 지출로 3,927억파운드(전년 대비 1.8% 증가)
  
- ◇ (경제위기 대응조치) 침체된 주택시장 부양, 기업활동 지원, 금융부문 개혁 등
  - (주택부양) 모기지 기준이자율 6.08%로 동결, 신규주택구입 대출지원 등
  - (기업지원) 기업금융보증제도 12개월 연장, 공자산(empty property) 면세 등
  - (금융부문 개혁) 금융시장이 개선되었다고 판단, 금융산업 개혁 조치 추진
  
- ◇ (재정건전화) 재정책임법안(fiscal responsibility bill) 의회 제출 ('09.12.9)
  - 정부의 재정책임 의지에 신뢰성 부여, 중기재정계획 설정 및 모니터링에 대한 의회의 명백한 역할 부여
  - FY2015년까지 GDP 대비 차입의 지속적 감소, 순부채 비중의 증가 억제 추진
  
- ◇ (고용촉진·지원) 청년실업대책과 50세 이상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 강화
  - 장기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청년일자리보장제도 강화
  -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50세 이상의 고용시장 신속 재진입을 지원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2009 Pre-Budget에서는 영국 경제의 안정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과 영국 GDP 성장률을 높게 전망
  -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2010년 3.25%, 2011년~2012년 4.25%로 2009 예산안 전망치에서 상향조정
  - 영국의 2009년 GDP 성장률은 연초 전망보다 악화된 -4.75%로 수정, 2010년에는 플러스 성장(1~1.5%)으로 전환하여 2011년부터 3.25~3.5%에 이를 것으로 예측

[그림 VI-1] 영국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1950~2012)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9) Annex A : The economy Chart A4

-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2009년 4분기에 2%로 2008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0년 1월 VAT인하 종료로 일시적 증가 예상

- 이후 생산갭(output gap)이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CPI는 2010년 1.75%, 2011년 1.5%로 감소하다가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2012년에는 목표범위 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표 VI-1> 영국 경제전망

(단위: %)

경제 전망	실적치		전망치			
	'00~'07평균	2008	2009	2010	2011	2012
실질GDP 성장률	2.75	0.5	-4.75	1~1.5	3.25~3.75	3.25~3.75
- 민간소비	1.75	0.5	-2	0.25	2	2
- 민간투자	0.25	0.25	-2	-0.25	1	1.25
- 정부소비 및 투자	0.75	1	1	0.25	-1	-0.75
- 순무역	-0.25	0.5	0.75	0.5	0.5	0.5
소비자물가(CPI)	-	4	2	1.75	1.5	2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9) Annex A : The economy

## 나. 재정전망

-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로 당분간 차입과 부채<sup>11)</sup>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FY2009년 말(2010년 3월) 기준 공공부문의 순차입 규모는 1,776억파운드(GDP의 12.6%), 순부채 규모는 7,989억파운드(GDP의 55.6%)로 추정
  - 순차입 규모는 재정건전화계획(Fiscal Consolidation Plan)에 따라 FY2010년에 GDP의 12.0%에서 FY2014년 GDP의 4.4%까지 줄어들 전망

11) 금융시장 개입의 영향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 PSNB ex),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PSND ex) 규모임. 순부채는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ies)에서 유동성 자산(liquid asset)을 제외하여 산출.

2009년 12월 말 기준 순부채(PSND) 규모는 GDP의 61.7%, 금융시장 개입을 제외한 순부채(PSND ex) 규모는 GDP의 52.5%임(Public Sector Finance Statistical Bulletin 2009.12).

- 경상 재정수지는 세입(6.4% 증가)보다 세출(6.6% 증가)이 늘어나 FY2010년에 GDP 대비 -9.3%까지 확대되었다가 FY2014년 GDP의 -3.2%로 축소될 전망
  - 경기변동을 조정한 재정수지는 FY2010년 GDP의 -5.4%에서 FY2014년 GDP의 -1.9%로 호전될 전망
- 공공부문 순부채 규모는 FY2010년에 GDP의 65.4%, FY2014년 77.7%로 지속적 증가 전망
  -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고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에 의해 건전화 노력이 성공할 경우 FY2015년부터 순부채 규모 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

<표 VI-2> 영국 일반정부부문 예산 총량

(단위: 십억파운드, %)

	2008 실적	2009 추정	전 망					
			2010	증감률(%) GDP 증감(%p)	2011	2012	2013	2014
<b>경상예산</b>								
세입(A)	532.4	498.1	530	6.4	576	617	656	694
(GDP, %)	(37.1)	(35.3)	(36.0)	(0.7)	(37.3)	(37.7)	(37.8)	(39.6)
세출(B)	563.8	607	647	6.6	666	686	707	729
(GDP, %)	(39.3)	(43.1)	(44.0)	(0.9)	(43.1)	(41.9)	(40.7)	(39.6)
감가상각(C)	18.7	19.2	20	4.2	21	22	23	24
(GDP, %)	(1.3)	(1.4)	(1.4)	(0.0)	(1.4)	(1.3)	(1.3)	(1.3)
경상재정수지 (D=A-B-C)	-50.1	-128.1	-137	6.9	-111	-91	-74	-59
(GDP, %)	(-3.5)	(-9.1)	(-9.3)	(-0.2)	(-7.2)	(-5.6)	(-4.3)	(-3.2)
<b>자본예산</b>								
총투자(E)	64	68.7	60	-12.7	50	48	45	47
(GDP, %)	(4.5)	(4.9)	(4.0)	(-0.9)	(3.3)	(2.9)	(2.6)	(2.6)
공제감가(F)	-18.7	-19.2	-20	4.2	-21	-22	-23	-24
(GDP, %)	(-1.3)	(-1.4)	(-1.4)	(0.0)	(-1.4)	(-1.3)	(-1.3)	(-1.3)
순투자(G=E+F)	45.3	49.5	39	-21.2	29	26	22	23
(GDP, %)	(3.2)	(3.5)	(2.7)	(-0.8)	(1.9)	(1.6)	(1.3)	(1.3)
순차입(H=G-D)	95.4	177.6	176	-0.9	140	117	96	82
(GDP, %)	(6.6)	(12.6)	(12.0)	(-0.6)	(9.1)	(7.1)	(5.5)	(4.4)
공공부문 순부채 (회계연도 말 기준)	618.8	798.9	986	23.4	1139	1270	1379	1473
(GDP, %)	(44.0)	(55.6)	(65.4)	(9.8)	(71.7)	(75.4)	(77.1)	(77.7)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9) Annex B : The Public Finance

## 2. 예산기조

□ FY2010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여 부처별 지출한도 변경 계획이 없으며, FY2011~2014년까지 공공지출의 실질증가율은 평균 0.8%로 계획<sup>12)</sup>

- “경기회복의 공고화, 경제성장과 기회 제공”(Securing the recovery : growth and opportunity)이라는 기조 아래 ① 거시안정성 유지 ② 금융시장개혁 ③ 기업·성장 지원 ④ 취약계층 지원 및 공정성 확보 ⑤ 공공서비스 유지 ⑥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등 6가지 세부 재정목표 제시

□ (거시안정성 유지) 경기회복 공고화를 위한 가계·기업지원과 재정건전성 확보 병행

- 2011년 4월부터 저소득층의 사회보장기여금(NICs) 면제기준을 연 20,000파운드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의 기여율을 모두 0.5%p 인상하여 세입감소 방지
- FY2012년에 소득세율 중 높은 세율(40%) 과세구간을 현행(37,400파운드 초과)으로 동결
- 2011년 4월부터 연소득(근로자, 고용주 연금기여금 포함)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의 연금기여금 소득공제 제한

□ (금융시장개혁) 금융산업의 과도한 위험투자 방지, 금융안전성 확보, 투자은행 손실에 의한 부정적 파급효과 감소,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치 발표

- '09.12.9부터 '10.4.5까지 은행과 건설조합(building society)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discretionary bonus) 중 25,000파운드 초과분에 대해 추가 50%의 원천세(payroll tax) 부과
- 모기지담보부 증권시장의 안정성·투명성·표준화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커버

12) 영국 재무장관은 이번 Pre-budget 연설(2009.12.9)에서, 중기재정(Spending Review)을 유보하고 향후 5년간(FY2010~2014) 부처별 지출한도를 평균 0.8% 이내로 통제한다고 발표. 공공지출의 삭감이 불가피하나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음.

드본드(covered bond) 시장 육성, 비은행권 대출 활용방안 논의 추진

- 은행에 대한 과세 지침, 은행간 결제제도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식 마련 등
- FY2011년 재정지원서비스(Money Guidance Service)에 2천만파운드 추가 지원, 무료상담서비스(Citizens Advice bureaux) 연장 운영에 500만파운드 지원

□ (기업·성장 지원) 경기회복 조치와 함께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 마련

- 납세연기서비스 유지, ‘공자산율경감제(empty property rate relief)’의 한시적 확대,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연기
- 중소기업의 대출 편의를 위한 기업금융보증제도(12개월간 지속)에 5억파운드 추가 지원, 성장자금기금(growth capital fund) 신규 조성 등
- 2013년 4월부터 특허를 통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감면(Patent Box) 도입
- 저탄소투자지원을 포함한 전략투자기금(Strategic Investment Fund)에 2억파운드 추가 지원

□ (취약계층 지원 및 공정성 확보)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보조와 세수증대를 위한 고소득자 부담 강화, 조세회피 방지책 등을 함께 추진

- 청년일자리보장제도 확대 시행에 3억파운드 재원 투입
  - 6개월간 구직수당을 받는 청년층(18~24세)에 최소 6개월간 일자리·실무경험 보장
- 2010년 9월부터 저소득 근로가정 자녀에게 초등학교 무료 급식 확대
- 2010년 4월부터 기초국가연금 2.5%, 자녀세액공제 20파운드를 인상하고 그 외 복지급여 및 세액공제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연동하여 1.5% 인상
- FY2010년 상속세 공제를 현행 325,000파운드로 동결, 해외탈루 등 조세회피방지를 강화하여 연간 50억파운드 확보 계획(탈세액의 200%까지 가산세 부과)

- (공공서비스 유지)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부문의 ‘일선(frontline)’ 서비스 강화, 공공부문의 효율화 추진
  - 의료, 교육 등 일선 공공서비스의 실질적인 삭감은 없음
    - NHS의 경우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지출 총액이 증가하고, 교육지출은 실질적으로 0.7% 증가함
    - 경찰인력 등 공공서비스 인력을 유지하고 해외원조 규모도 2013년까지 유지
  - 정부효율화를 통해 FY2012년까지 110억파운드의 지출감축 계획
    - FY2012~FY2013년까지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1%로 하여 34억파운드 절감
    - FY2012년 이후 공적연금서비스 개혁을 통해 10억파운드 절감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저탄소 성장을 위한 기업투자와 에너지 비용절감 가계에 추가 4억파운드 지원, 향후 3년간 저탄소에너지 부문에 150억파운드 규모 투자
  - 유럽투자은행의 저탄소 인프라 펀드에 1억유로 출자, 영국 내 저탄소산업에 1억 2천만 파운드 지원
  - 노후 보일러를 에너지절감(greener)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400파운드) 지급 등 에너지효율화에 2억파운드 지원
  - 전기자동차에 대해 2010년부터 회사차량 과세 면제, 전기 밴(vans)의 경우 초년도 공제(first-year allowance) 100% 적용 도입, 저탄소 교통 프로젝트에 추가 3천만 파운드 투자

### 3. 예산안 내역

#### 가. 세입내역

- FY2010년 경상세입은 5,303억파운드로 2009 예산안 전망보다 18억파운드(약 0.3%), FY2009년 세입(추정치) 대비 6.4% 증가
  - 2009 예산안 전망치보다 인지세, 법인세, VAT 등의 증가 예측
    - 실질적 주택가격 상승 가정(5%)으로 인지세를 26억파운드 증가한 93억파운드로 추정
    - 경기회복으로 인해 법인세는 16억파운드 증가한 409억파운드로 예측, VAT는 8억파운드 증가한 742억파운드로 추정
  - 소득세는 2009 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나 NICs는 15억파운드 감소 전망
    - 경기회복으로 소득증가가 기대되기는 하나 시차를 고려하여 소득상승률을 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은 5.5%로 가정

<표 VI-3> 경상세입

(단위: 십억파운드)

	세입			2009 예산안 전망과 차이		
	FY2008 실적	FY2009추정	FY2010예측	FY2008실적	FY2009추정	FY2010예측
소득세(세액공제 포함)	153.5	140.4	144.7	0.9	-0.1	0
소득세 세액공제	-5.6	-6.2	-6.5	0.1	0	-0.3
NICs <sup>1)</sup>	96.9	94.8	98.1	0.4	-2.9	-1.5
VAT	78.4	67.2	74.2	0	3.5	0.8
법인세	43.7	34.1	40.9	0.3	-0.6	1.6
법인세 세액공제	-0.6	-0.7	-0.8	0	0	0
석유세	2.6	1.2	1.6	0	0.1	0.4
연료세	24.6	26.4	28	0	-0.2	-0.1
자본취득세	7.8	2.5	2.6	0	0.2	0.9
상속세	2.8	2.2	2.3	0	0	0.4
인지세	8	7.4	9.3	0	2.5	2.6
담배세	8.2	8.8	8.9	0	0.5	0.6
산업용주정(spirits)세	2.4	2.6	2.6	0	0	0
와인세	2.7	2.9	3	0	0.2	0.3
맥주 및 과일주(cider)세	3.4	3.5	3.5	0	0.1	0.1
사행성(betting and gaming)세	1.5	1.4	1.4	0	0	-0.1
항공여객세	1.9	1.9	2.3	0	0.1	0.1
보험료세	2.3	2.3	2.3	0	-0.2	-0.2
쓰레기매립세	1	0.9	1.2	0	-0.1	-0.1
에너지환경세	0.7	0.7	0.7	0	0	0
콘크리트 제조용 공재채취세	0.3	0.3	0.3	0	0	0
관세	2.7	2.6	2.5	0	-0.1	-0.2
<b>총국세</b>	<b>439.1</b>	<b>397</b>	<b>423.1</b>	<b>1.7</b>	<b>2.8</b>	<b>5.3</b>
자동차세	5.6	5.7	6.1	0	0.1	-0.1
비거주재산세	22.9	23.7	24.6	0.1	-0.2	0
카운슬세 <sup>2)</sup>	24.4	24.8	25.8	0	-0.1	-0.1
기타 <sup>3)</sup>	15.7	16.4	19.2	0.4	-0.4	0.3
<b>순조세 및 NICs<sup>4)</sup></b>	<b>507.7</b>	<b>467.6</b>	<b>498.8</b>	<b>2.3</b>	<b>2.2</b>	<b>5.5</b>
발생주의 조정	-4.2	1.3	1.7	0.2	1	-1.2
EU 분담금 공제	-5.1	-3.7	-4.6	0.1	0.4	0.2
공기업 법인세 지출 공제	-0.2	-0.2	-0.2	0	0	0
세액공제 조정 <sup>5)</sup>	0.6	0.7	0.8	0	0	0
이자 및 배당	7	4.4	4.7	-0.5	-1.2	-1.6
기타수입 <sup>6)</sup>	26.7	28.1	29.2	-0.4	-0.3	-1
<b>총수입</b>	<b>532.4</b>	<b>498.1</b>	<b>530.3</b>	<b>1.7</b>	<b>2.1</b>	<b>1.8</b>
memo: 북해세입 <sup>7)</sup>	12.9	7	8.4	0	0.1	1.8

- 주: 1) 은행 원천세(payroll tax) 포함  
 2) 카운슬세(Council tax) 증가는 매년 지방정부에 의해 결정  
 3) VAT 환급, 국가복권기금 수입 포함  
 4) VAT 연계 EU 분담금, '전통적 EU 예산'(traditional own resource) 분담금 포함  
 5) 세액공제는 마이너스 세입으로 포함. 국민계정에서는 지출로 분류  
 6) 지방정부에 의해 지출되는 운영수익, 임대,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 포함  
 7) 북해(North Sea) 법인세와 석유세(petroleum revenue tax)로 구성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9) Annex B : The Public Finance

- FY2010년 경상세입은 GDP 대비 36.0%로 경기침체가 시작된 FY2008년에 비해 1.1%p 감소,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FY2009년에 비해서 0.7%p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이후 경기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세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Y2012~2014년에 37.7%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

<표 VI-4> 경상세입 GDP 대비 비율

(단위: %)

	2008 실적	2009 추정	전 망				
			2010	2011	2012	2013	2014
소득세(세액공제 포함)	10.7	10.0	9.8	10.2	10.6	10.8	11.0
NICs <sup>1)</sup>	6.8	6.7	6.7	6.9	6.9	7.0	7.0
비북해(Non-North Sea) 법인세	2.3	2.0	2.3	2.1	2.5	2.4	2.4
세액공제	-0.4	-0.5	-0.5	-0.5	-0.5	-0.5	-0.5
북해 세입 <sup>2)</sup>	0.9	0.5	0.6	0.6	0.6	0.5	0.4
VAT	5.5	4.8	5.0	5.3	5.2	5.1	5.0
개별소비세 <sup>3)</sup>	2.9	3.1	3.1	3.1	3.1	3.0	2.9
기타	6.8	6.6	6.8	6.9	6.9	6.9	6.9
<b>순세입 및 NICs<sup>4)</sup></b>	<b>35.4</b>	<b>33.2</b>	<b>33.9</b>	<b>34.9</b>	<b>35.3</b>	<b>35.3</b>	<b>35.3</b>
발생주의 조정	-0.3	0.1	0.1	0.2	0.3	0.2	0.2
EU 분담금 공제	-0.4	-0.3	-0.3	-0.3	-0.3	-0.3	-0.3
기타수입	2.4	2.3	2.3	2.5	2.5	2.6	2.5
<b>총세입</b>	<b>37.1</b>	<b>35.3</b>	<b>36.0</b>	<b>37.3</b>	<b>37.7</b>	<b>37.8</b>	<b>37.7</b>

주: 1) 은행 원천세(payroll tax) 포함

2) 석유세(Petroleum revenue tax), 북해법인세 포함

3) 유류, 주류, 담배세

4) VAT 연계 EU 분담금, '전통적 EU예산'(traditional own resource) 분담금 포함. 현금기준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9) Annex B : The Public Finance

## 나. 세출내역<sup>13)</sup>

□ FY2010년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TME)은 전년 대비 4.6%, 2009 예산안 전망치보다 49억파운드(약 0.7%) 증가한 7,066억파운드

○ 연간관리지출(Annual Managed Expenditure: AME)은 3,139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3) 영국의 총관리지출(TME)은 연간관리지출(AME)과 부처별지출한도(DEL)의 합. AME는 고정비적 성격의 지출로 크게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DEL은 재량적 성격의 지출로 마찬가지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8.3% 증가, 부처별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DEL)는 3,927억과  
운드로 전년 대비 1.8% 증가

<표 VI-5>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단위: 십억파운드)

	총관리지출			2009 예산안 전망과 차이		
	FY2008 실적	FY2009 추정	FY2010 계획	FY2008 실적	FY2009 추정	FY2010 계획
경상지출						
<b>경상 DEL</b>	<b>321.2</b>	<b>342.2</b>	<b>353.4</b>	<b>-3.1</b>	<b>0.1</b>	<b>1.2</b>
현금성 DEL	301.6	319.5	329.8	-1.4	-0.4	1.0
비현금	19.5	22.7	23.6	-1.7	0.5	0.2
<b>경상 AME</b>	<b>242.7</b>	<b>264.8</b>	<b>293.6</b>	<b>2.5</b>	<b>-1.1</b>	<b>1.1</b>
사회보장급여 <sup>1)</sup>	149.8	163.8	169.5	-0.3	-0.9	-1.4
세액공제 <sup>1)</sup>	19.8	22.1	22.8	0.0	0.5	1.0
순공공서비스연금 <sup>2)</sup>	3.3	4.1	4.8	0.3	0.0	0.2
국가복권	1.0	0.9	0.9	0.1	0.0	0.1
BBC 내국 서비스	3.4	3.5	3.7	0.0	0.0	0.0
기타부처지출	0.9	-0.4	2.0	0.1	-2.8	0.3
순EU분담금 (Net expenditure transfers to EC institutions) <sup>3)</sup>	3.1	6.6	7.4	0.0	0.9	-0.5
지방재정(Locally-financed) 지출	26.8	27.0	28.3	-0.6	-0.9	-0.2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30.5	30.7	44.4	0.1	3.5	1.5
AME 예비비(margin)	0.0	0.9	1.8	0.0	0.0	0.0
회계조정	4.0	5.4	8.1	2.9	-1.5	0.2
<b>공공부문 경상지출</b>	<b>563.8</b>	<b>607.0</b>	<b>647.1</b>	<b>-0.6</b>	<b>-1.0</b>	<b>2.2</b>
자본지출						

<표 VI-5>의 계속

	총관리지출			2009 예산안 전망과 차이		
	FY2008 실적	FY2009 추정	FY2010 계획	FY2008 실적	FY2009 추정	FY2010 계획
<b>자본 DEL</b>	<b>48.1</b>	<b>56.6</b>	<b>52.7</b>	<b>-0.2</b>	<b>-1.1</b>	<b>1.1</b>
<b>자본 AME</b>	<b>15.9</b>	<b>12.1</b>	<b>6.8</b>	<b>8.0</b>	<b>6.4</b>	<b>1.5</b>
국가복권	0.5	1.0	0.9	-0.1	0.0	0.0
지방채정 지출	7.4	5.8	4.7	2.9	1.4	0.8
공기업 자체(own-financed)지출	6.8	7.1	7.4	-0.4	-0.3	-0.2
중앙정부 보조금(공공부문 은행)	9.9	3.0	0.0	9.9	3.0	0.0
기타 자본지출	-0.4	1.4	1.4	-0.8	-0.1	0.5
AME 예비비(margin)	0.0	0.0	0.0	0.0	-0.1	-0.2
회계 조정	-8.4	-6.2	-7.5	-3.6	2.4	0.6
<b>공공부문 총투자</b>	<b>64.0</b>	<b>68.7</b>	<b>59.5</b>	<b>7.8</b>	<b>5.3</b>	<b>2.7</b>
감가상각 공제	-18.7	-19.2	-20.1	-0.1	0.4	0.6
공공부문 순투자	45.3	49.5	39.5	7.7	5.7	3.3
<b>총관리지출<sup>4)</sup></b>	<b>627.8</b>	<b>675.7</b>	<b>706.6</b>	<b>7.1</b>	<b>4.3</b>	<b>4.9</b>
DEL	357.7	385.9	392.7	-3.0	-1.5	2.2
AME	270.1	289.9	313.9	10.2	5.7	2.7

주: 1) FY2008년은 아동수당과 구직수당을 사회보장급여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에 포함  
 2) 순공공서비스연금(Net public service pensions) 지출은 국민계정 기준으로 작성  
 3) AME 지출만 포함. GNI 연계 EU분담금에서 영국이 받고 있는 EU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4) 총관리지출은 공공부문 경상지출, 공공부문 순투자, 공공부문 감가상각의 합계(금융시장 개입의 한시적 효과 제외)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9) Annex B : The Public Finance

- (AME) 2009 예산안보다 높게 가정한 인플레이션과 정부채수익률 변화로 예산안 전망보다 27억파운드(약 0.9%) 증가
  - 사회보장급여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2,936억파운드로 전년보다 증가세(9.3%) 완화
  - 세액공제(Tax credits)는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228억파운드 규모

- 순EU분담금 중 AME 지출부분은 74억파운드로 전년보다 8억파운드 증가
  - 중앙정부 총채무이자는 차입증가와 금리인상으로 전년 대비 44.6% 증가한 444억파운드 규모
- (DEL<sup>14</sup>) 2009 예산안 전망치보다 22억파운드(약 0.6%) 증가. FY2010년은 중기재정(CSR2007)의 마지막 기간으로 CSR에서 설정된 범위내에서 부처별 지출 계획
- 보건부(Health) 지출은 대부분 NHS 지출로 경상지출 1,040억파운드, 자본지출 47억파운드 규모임. 전년 대비 경상지출은 약 3.9% 증가, 자본지출 약 13% 감소
  - 아동·학교·가족부(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지출한도는 경상지출 513억파운드(전년 대비 4.3% 증가), 자본지출 67억파운드(전년 대비 9.5% 감소)
    - FY2009년 지출에 이월금에서 추가 1억 3천만파운드 배정<sup>15</sup>)
    - UN 기준에 따른 교육지출은 892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약 1.4% 증가
  - 국방부(Defence) 지출상한은 경상지출 367억파운드, 자본지출 88억파운드 규모로 전년보다는 각각 5.7%, 2.2% 감소
    - 군사작전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준비금 25억파운드 추가
  - 사회적 주거대책(Social Housing Package) 재원 3억 5천만파운드를 교통부(Transport)에서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Community and Local government)로 이전

14) FY2008년에 2009 예산안 추정치보다 30억파운드 감소한 실적치를 기록

15) 'Building schools for future', 'academies programmes' 에 배정

<표 VI-6> 부처별 지출한도

(단위: 십억파운드)

	경상지출			자본지출		
	FY2008 실적	FY2009 추정	FY2010 계획	FY2008 실적	FY2009 추정	FY2010 계획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46.8	49.2	51.3	5.5	7.4	6.7
Health	92.3	100.1	104.0	4.4	5.4	4.7
of which: NHS England	90.7	98.4	102.3	4.2	5.3	4.6
Transport	5.7	6.4	6.4	7.2	8.0	7.3
CLG Communities	4.2	4.5	4.5	7.1	9.1	6.4
CLG Local Government	24.7	25.6	26.3	0.1	0.2	0.1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18.0	19.1	19.2	2.1	3.0	2.3
Home Office	9.2	9.6	9.8	0.8	0.8	0.8
Justice	9.1	9.6	9.4	0.9	0.9	0.7
Law Officers' Departments	0.7	0.7	0.7	0.0	0.0	0.0
Defence	36.7	38.9	36.7	8.7	9.0	8.8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2.1	2.1	1.6	0.2	0.2	0.2
International Development	4.8	5.4	6.2	0.9	1.4	1.6
Energy and Climate Change	0.4	1.1	1.1	1.7	2.1	2.0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2.6	2.7	2.7	0.6	0.7	0.6
Culture, Media and Sport	1.6	1.7	1.7	0.9	0.5	0.6
Work and Pensions	8.0	8.9	9.8	0.1	0.3	0.3
Scotland	24.6	25.6	26.1	3.3	4.0	3.2
Wales	12.0	13.6	14.0	1.6	1.7	1.8
Northern Ireland Executive	8.0	8.4	8.7	1.2	1.1	1.1
Northern Ireland Office	1.3	1.2	1.2	0.1	0.1	0.1
Chancellor's Departments	4.5	4.4	4.2	0.3	0.4	0.2
Cabinet Office	2.1	2.3	2.4	0.4	0.4	0.4
Independent Bodies	0.8	0.9	1.0	0.0	0.1	0.1

<표 VI-6>의 계속

	경상지출			자본지출		
	FY2008 실적	FY2009 추정	FY2010 계획	FY2008 실적	FY2009 추정	FY2010 계획
Modernisation Funding	0.0	0.3	0.2	-	-	-
Reserve	0.0	0.4	4.0	0.0	0.8	2.8
Allowance for shortfall	0.0	-0.6	0.0	0.0	-0.8	0.0
<b>DEL 소계</b>	<b>321.2</b>	<b>342.2</b>	<b>353.4</b>	<b>48.1</b>	<b>56.6</b>	<b>52.7</b>
	FY2008 실적		FY2009추정		FY2010계획	
감가상각	11.6		13.0		13.5	
<b>총DEL</b>	<b>357.7</b>		<b>385.9</b>		<b>392.7</b>	
총교육지출 <sup>1)</sup>	81.4		88.0		89.2	

주: 1) 교육지출은 UN의 정부기능 분류기준에 따라 정의함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9) Annex B : The Public Finance

## 4. 주요 재정정책

### 가. 경제위기 대응조치

- (가계·기업지원)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08 Pre-budget 이후 고용지원 정책, 주택부양 정책,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고용촉진) 2010년 1월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의 일자리와 취업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일자리보장제도 시행
    - 2008 Pre-budget에서 발표한 30억파운드 규모의 고용지원사업(Jobcentre Plus, New Deal Programme) 추가지원을 통해 70%의 구직자가 조기취업 달성
    - 미래형 일자리기금(Future Jobs Fund)을 통해 9만 5천개의 청년 일자리 지원
  - (주택부양 정책) 모기지 기준이자율을 향후 6개월간 6.08%로 동결, FY2010년 신규주택구입 대출지원에 1억 5천만파운드 재원 마련 등
    - 2008년 9월에 발표한 한시적 인지세 면제조치(2009.12.31 종료)로 24만건의 거래에 혜택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
    - FY2010 예산안에 주택토지공급 방안, 주택관련 규제 비용에 대한 정부기준과 다양하고 건설한 주택건설산업 추진 방안을 마련
    - 2010년 초에 민간 임대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및 투자장벽 등에 관한 정책 컨설팅 보고서 발표
  - (기업지원) 기업금융보증제도(Enterprise Finance Guarantee Scheme)와 전략투자기금(Strategic Investment Fund) 등을 통한 한시적 중소기업 지원책에 이어 미래성장동력 지원 정책 마련
    - 저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및 투자(2억 9천만파운드), 기업금융보증제도 12개월 연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장자본기금(Growth Capital Fund) 조성 등 대책 마련
    - 2009년 3월에 발표한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sup>16)</sup> 납부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FY2009년에 약 10억파운드의 기업 현금유동성 지원

- 초기자본공제 40%,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등 2009 예산안의 한시적 법인세 경감 조치에 이어, FY2010년에는 과세표준이 18,000파운드 이하 공자산(empty property)에 대해 70% 면세 적용

□ (자본지출 조기집행) 2008 Pre-budget에서 발표한 30억파운드 중 2009년 12월 9일 현재까지 17억파운드를 집행한 것으로 추정

- 도로기반 확충에 4억파운드, 난방효율화제도(Warm Front Scheme)에 1억파운드 지원, 직업훈련시설 확충 및 환경친화적 주거대책 등에 재원투입
- 2009 Pre-budget에서 난방효율화제도와 녹색(greener) 보일러 사업에 추가적으로 2억파운드 지원 발표
- 2009 예산안에서 6억파운드의 신규 주택건설 및 주택사업 투자 발표, 영국미래구축(Building Britain's Future) 계획에 15억파운드 규모 주거지원 포함

□ (금융부문 지원) '08.10월부터 긴급 금융구제안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및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2009 Pre-budget에서는 '09.4월 이후 금융시장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여 금융산업 개혁을 위한 조치들을 발표

- 금융산업의 과도한 위험투자 방지, 금융안전성 확보 조치 등
- 은행업계의 과도한 보너스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5,000파운드 초과분에 추가 50%의 원천세(payload tax) 적용
- 모기지담보부 증권시장 개선, 은행에 대한 과세 지침 마련 등
-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조(State aid) 승인 건에 한하여 신용보증제도(Credit Guarantee Scheme) 단기(2개월) 연장

---

16) 'business rates'는 비거주재산세(Non-Domestic Rates)로 사업용 자산에 부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임차인 포함)에게 부과

-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9 예산안에서 인프라금융기구(Infrastructure Financing Unit) 설립 발표
  - 37억파운드의 재원을 포함한 23개 PFI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조건을 확정(financial close)

## 나. 재정건전화

- 재정책임법안(fiscal responsibility bill) 의회 제출
  - 재정책임법안은 입법을 통한 최초의 재정건전화계획(Fiscal Consolidation Plan: FCP)으로, 정부의 재정책임 의지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의회에는 중기재정계획의 설정과 모니터링에 대한 명백한 역할 부여
  - FCP는 FY2009~FY2015년까지 적용
    - 공공부문 GDP 대비 순차입 규모를 4년 이내에 FY2009년 전망치(12.6%)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보조입법을 통해 FY2013년에 GDP의 5.5% 이하로 줄일 계획
    - FY2009~FY2015년 동안 매년 GDP 대비 차입비중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FY2015년까지 공공부문 순부채의 GDP 비중 증가 억제
- 세수 증대와 지출 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NICs 효율 인상(0.5%p)과 고소득자(기여금 포함 15만파운드 이상) 연금기여금 소득공제 제한을 통해 세입 증대
  - FY2011년 이후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연평균 실질증가율 0.8% 이내), 공공부문 순투자를 FY2013년까지 GDP의 1.25%로 축소

## 다. 고용촉진·지원

- (실업 추이 및 전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 JSA) 청구자 수가 경기회복 예상시점인 2010년 중반 이후로 점차 감소할 전망
  - 16세 이상 인구의 2009년 3사분기 실업자 수는 246만명, 실업률은 7.8%<sup>17)</sup>
    - 실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30만명, 전년 대비 629만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0.1%p, 전년 대비 2.0%p 증가
    -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율은 25.1%로 전년 대비 1.5%p 증가
  - 2010년 중반에 175만명까지 JSA 청구자가 증가하고,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JSA 청구자 수가 2012년에 150만명, 2014년에 125만명으로 감소할 전망
    - OECD의 영국 실업률 전망은 2009년 8.0%, 2010년 9.3%, 2011년 9.5%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sup>18)</sup>
  
- (노동시장 지원책) 실업률을 완화하고 구직수당 수급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8 Pre-budget, 2009 예산안 조치를 유지하고 추가적 정책 마련
  - (청년고용 지원) 청년취업지원(Backing Young Britain) 캠페인에 3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여 멘토링, 수습, 현장경험, 인턴쉽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지원
  - (청소년 취업훈련지원) 2010년 1월 기준,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는 16~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을 지급하여 취업시장 진입을 지원
  - (정리해고 대응)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와 정리해고 전 근로자의 이직을 지원하는 신속대응서비스(Rapid-Response Service)를 3,000명 이상의 고용주가 이용. 2008 Pre-budget 이후 재원을 두 배로 투입함
  - (고용지원센터) 15,000명까지 증가한 고용지원센터(Jobcentre Plus)의 개별상담·지

17) 영국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ONS), Labour market statistics 2009. 11

18) OECD(2009), Economic Outlook no.86

- 원 인력의 효과적 업무수행으로 구직수당 수급자의 70%가 6개월 이내 조기 취업
- (장기실업대책) 2009년 4월 이후 6개월 이상의 실업상태를 유지한 12,000명 이상이 포괄적인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음
  - 6개월 이상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를 채용하거나 창업지원을 포함한 취업 훈련을 제공한 고용주에게 최고 2,500파운드 지원

□ 2009 Pre-Budget 고용촉진·지원 정책

- (청년실업대책) 장기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2010년 1월부터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보장제도를 강화
  - 추가로 3억파운드를 투입하여 6개월간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18~24세)에 대해서도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일자리 및 직업훈련을 보장
  - FY2009 예산안에서 12억파운드를 투입하여 1년간 구직수당을 받고 있는 모든 청년(18~24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일자리 및 직업훈련 보장 발표
    - : ‘10만 신규 미래형일자리기금(100,000 new Future Jobs Fund)’을 통한 청년취업 지원 포함. 이 기금은 현재까지 지역사회보호(communitary care), 환경서비스, 스포츠 강사 등 9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 달성
- (50세 이상에 대한 취업지원) 고용지원센터와 전문인력업체(specialist provider)를 통해 50세 이상의 구직자가 고용시장에 신속하게 재진입하도록 추가 지원
  - 2011년 4월부터 주 16시간 이상 일하는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근로세액공제 (Working Tax Credit) 확대 적용(현행 주 30시간 이상)
- (기타 근로유인 정책) 최저임금, 급여 및 세액공제를 통해 근로를 통한 소득이 실업관련 급여보다 많아지도록 조정(‘Better Off in Work’ credit)

## (참고) 2009 Pre-budget 재정정책 연도별 적용 규모

(단위 : 백만파운드)

주요정책	구분	2009	2010	2011	2012
<b>재정건전성</b>					
국민보험 기여금 비율 인상(NICs 0.5%p)	세입	0	0	+4,640	+4,890
연금과세 조정(소득기준 변경)	세입	-10	-40	0	+500
소득세 최고과세구간 동결(FY2012)	세입	0	0	0	+400
은행 특별상여금 50% 과세	세입	+550	0	0	0
FY2010년 상속세 공제 동결	세입	0	+80	+170	+190
보험프리미엄세(조세회피 방지)	세입	+5	+10	+10	+10
물가연동국채(조세회피 방지)	세입	0	+40	+65	+40
<b>기업지원</b>					
공자산 경감세율 한시적용	세입	0	-135	+10	0
소규모 기업 법인세율 인상 연기	세입	0	-10	-380	-110
특허감면 FY2013~	세입	0	0	0	0
전략투자자금 추가 지원	지출	0	-110	0	0
<b>환경보호</b>					
법인차량 과세구간 조정 FY2012~	세입	0	0	0	+120
에너지절감 유인 정책	지출	0	-85	0	0
<b>가계지원</b>					
학교 무료급식 확대	지출	0	-140	0	0
복지급여 인상	지출	0	-700	0	0
개인재정지원서비스	지출	0	-10	0	0
근로장려세액공제 : 65세 이상 2010.4~	지출	0	-5	-	-
주택급여 2011~	지출	0	-40	-	-
모기지 이자 지원	지출	-25	-70	0	0
<b>총재정정책 규모<sup>1)</sup></b>		<b>+415</b>	<b>-1,240</b>	<b>+3,535</b>	<b>+5,095</b>
<b>기타</b>					
군사작전 예비비	지출	0	-2500	0	0
공공부문 경상지출	지출	0	0	-7,700	-6,900

주: 총재정정책 규모는 2009 예산안 이후 발표된 정책을 포함. 표에 열거된 정책들은 2009 Pre-budget 발표 정책 중 일부를 발취한 것으로 표 수치 합계와 제시된 총재정정책규모는 일치하지 않음

출처: 영국 『Pre-Budget Report』 (2009) Table 1.2